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語種) 활용 양상에 관한 연구

박혜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시간강사

- I. 서론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III.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
- IV. 어종 활용의 유형과 교육적 함의
- V. 결론을 대신하여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새말 만들기 과정을 분석하여 어종(語種)¹⁾ 선택과 관련한 유의미한 양상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어 형성 교육에서의 어종 활용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단어 형성 교육에서 어종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학습자가 ‘고유어·한자어·외래어’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수행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종을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야말로 관련 교육 내용을 논의하는 데 선행해야 할 단계라고 판단, 본 연구를 통해 어종과 관련한 학습자의 인식 및 수행 양상을 살

1) 어종(語種)은 단어의 기원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단어를 칭하는 것으로 아직 한국어에 동화되지 않은 외국어 어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 2016: 151). 다만 외래어와 외국어의 경계에 있는 것이 많아 인식적으로 이 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바, 본고는 ‘그 차용원이 대부분 외국어인 단어’의 개념으로 ‘외래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외래어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임흥빈(2008), 노명희(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피고자 하는 것이다.

국어 어휘 체계 내에서 한자어가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외래어를 활용한 새말 형성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²⁾

한자어와 외래어는 단어 형성에 있어 고유어와는 다른 고유의 언어적 특성을 갖는다. 개념 글자인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매우 쉽게 단어를 만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한다. 고유어로 표현하기에 다소 길어질 수 있는 개념이 한자어로는 간단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으며(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 2015: 153-154), 문자 하나 하나가 형태소의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단(clipping)을 통한 단어 형성에도 유리하다(이광호, 1997: 153). 외래어³⁾의 경우도 단어 형성 장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발현한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어에서의 형태론적 지위와 무관하게 분석되어 단어 형성 요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⁴⁾ 이는 어휘부에 새로운 어휘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광호, 1997: 536)으로, 개인의 어휘부 그리고 언어 공동체의 랑그 체계를 변화시키는 매우 역동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

이상 단어 형성에서 한자어 및 외래어가 차지하는 양적 비중, 그리고 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유어만을 초점화한 단어 형성 교육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⁶⁾ ‘학습자의 언어 생활과 밀접한, 살아 있는 단어 형

2) 남길임·김덕호(2014: 28)에 따르면 외래어를 포함한 새말은 전체 새말의 63.5%(단일원어: 28.66%, 복합원어: 34.92%)로, 외래어가 새말 형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본고의 ‘외래어’는 국어 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영어계 외래어를 지칭한다.

4) 레스토랑의 ‘-토랑’, 호텔의 ‘-텔’, 미팅의 ‘-팅’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들의 경우 원어에서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단위들이나 국어어휘 체계 안에서 형태소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이광호, 1997: 534; 이선영, 2018: 129).

5) 물론, 고유어 단어 형성에 있어서도 재분석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래어의 경우 그 사례가 비교적 다양하고, 새로운 어휘 항목이 재분석되어 정착되는 속도가 고유어에 비해 빠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6) 고유어 사례를 위주로 한 단어 형성 교육 내용의 문제점은 윤구희(2009), 안소진(2018)

성 교육'을 위해서 한자어 및 외래어 요소를 고려한 단어 형성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적 논의로 남지애(2015), 남택승(2016, 2019), 박혜진(2019) 등이 주목된다. 남택승(2016, 2019)는 외래어 새말이 범람하는 현실을 주목, 이를 단어 형성 교육과 연계하여 논의한 연구이다. 그는 새말 형성 교육에서 어종이 차지하는 의의를 조명하고, '어종 중심 새말 교육'을 제안하였으며, '비판적 인식 경험'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남지애(2015)는 어종과 관련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습자들이 주로 언어적 정체성을 근거로 고유어 사용을 지지함을 포착하고, 이러한 긍정적 태도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구안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말에 대한 태도 교육뿐 아니라 '단어 형성, 언어의 본질, 국어의 변천'과 관련한 교육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박혜진(2019)로 이어진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명명 활동을 분석하는 가운데 '어종 선택'과 관련한 유의미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단어 형성 교육의 맥락에서 어종 선택과 관련한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단어 형성 과정을 관장하는 언어 의식과 이것이 실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살피고자 하는 본고는 이상의 연구들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II장에서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과제 수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인데, III장은 양상의 체계화 과정을, IV장은 이에 대한 심층 해석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분석 결과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남은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등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들은 고유어 사례를 중심으로 한 단어 형성 교육 내용은 국어 어휘 체계 및 새말 형성 현상을 외면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교육 내용으로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본고는 형성의 맥락을 떠난 결과물로서의 단어를 분석하는 대신 ‘단어 형성 장면’ 그 자체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어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어종 활용의 특징’을 풍부하게 해석해 내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 형식의 명명 과제(naming task)⁷⁾를 시행, 이를 구성주의 근거 이론(constructivist grounded theory)⁸⁾의 방법론을 참조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각 대상별로 ‘단어 만들기 과정 메모-내가 만든 이름-스스로 평가하기’란을 두어 대상에 대한 새 명칭뿐만 아니라 그 형성 과정 및 수행에 대한 자기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명명 대상은 평소 많이 보던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명확하지 않는 6개의 구체물과 3개의 신종 직업으로 구성하였다.⁹⁾

-
- 7) 명명 과제(naming task)는 주어진 대상에 자유롭게 이름을 붙이는 형식의 과제이다. 이는 즉각적으로 형성된 임시어를 연구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로, 일찍이 N+N 합성 명사의 형성 조건을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Downing(1977)에서 시도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현희(2013), 정한데로(2013, 2019), 박혜진(2019) 등이 공식적인 조어 원리를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명명 과제를 활용하고 있어 참조된다.
 - 8) 근거이론은 현실에 기반한 자료에 근거하여 귀납적 발견의 맥락에서 이론을 도출할 것을 제안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적 전통, 혹은 그렇게 도출된 이론 그 자체를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Charmaz, 2006). 실제 단어 형성 장면을 분석하여 단어 형성 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본고는 이상 귀납적 발견의 맥락을 강조하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참조하였다.
 - 9) 명명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정한데로(2013), 박혜진(2019)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대상 자체는 익숙하지만 이름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명명 과제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함을 언급한 바 있다. 대상을 파악하는 데 드는 인지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실험 자체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대상에 더하여 동작 및 사람과 관련한 새말 만들기의 면모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비교적 친숙한 ‘신종 직업’을 명명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들을 [] 고 한다. 최근 한 매장에서 [] 가 전문 직업으로 등장했다고 보도 했다.	 최근 온라인상과 지 우로 많은 콘텐츠를 발굴해 지워 주는 [](가) 각종 알고 있다. []는 온 라인과 개인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을 참고해 검색해 주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기 인이나 기업, 브랜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 비스도 제공한다.	 달이 바르고 시간이 부족해서 가을 연막 시절 여유가 없는 직 업인들은 [] 을/를 고수한다. []는 가 와 함께 진행되는 것 을 직업으로 삼는 자 인이다. 매일 가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연막시키고, 연막 후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림 1〉 명명 대상

연구의 중심이 되는 본 설문은 2018년 8월 인천 소재 P고등학교에서 진
행하였다. 1학년 35명, 2학년 39명, 3학년 30명 총 104명에게 설문을 실시하
였으며 그 중 미작성률이 많은 무효 설문지를 제외하고 88개의 설문 결과지
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외래어 사용 빈도와 관련한 학습자 집단
의 특수 맥락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30명¹⁰⁾을 추가 설문하여 비
교의 근거로 삼았다. 학습자 집단, 전문가 집단 모두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
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구성주의 근거이론¹¹⁾의 코딩 방식을 참조하여 명명 설문지를 수

10) 국어 전문가 집단이라 함은 직업의 특성을 고려, 언어적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예상되는 국어 화자를 의미한다. 중등 국어교사 15명, 국어교육 전공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의 대학원 연구생 1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11) 근거이론의 코딩 절차에 관한 상세 설명은 Charmaz(2006), 윤건수(2013), 권향원
(2016), 조진수(2018)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검토하여 초점화 가능한 지점들을 포착하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을 반복하여 핵심 양상을 체계화하고 그 맥락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석의 절차

자료에 대한 발산적 검토 → 핵심 양상 추출 → 핵심 양상 범주화 → 양상의 해석 및 체계화

이상의 절차를 기본 축으로 한 자세한 분석 과정은 III, IV장을 통해 상술하기로 한다.

III. 명명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

1차 분석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면서 유의미한 양상들을 포착해 내는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틀이나 범주에도 국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적·발산적으로 자료를 다룬다. 이 과정은 주로 설문지에 직접 밑줄을 치거나 떠오르는 질문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차 분석부터는 유사점과 차이점에 기반하여 1차 분석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명명 과제 수행 시 어종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적 양상들을 언어로 기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표 2>는 2차 분석을 통해 추출한 주요 양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석을 통해 포착한 양상들이 거친 술어로 기술된다.

〈표 2〉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

	핵심 양상	상술
1	고유어나 한자어 단일 어종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수는 극히 적음	
...	(중략)	
9	의성어, 의태어 표현 시 고유어 사용 양상 두드러짐	⑥의 경우 발을 구르며 뛰는 모습을 단어에 그대로 나타낸 다음과 같은 형태가 발견됨. 이 경우 고유어 사용이 두드러짐. 예) 뽕뽕이, 뽕뽕이, 하늘팡팡이, 띠뽕
10	형태화 단계에서 어종을 변환하는 양상이 나타남	특히 대상을 고유어/한자어로 개념화한 후 외래어로 변환하는 양상이 두드러짐 예) 손가락+보호→손가락보호기→핑거세이퍼(④)
11	(언어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고유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확인됨	고유어를 썼다는 이유로 자신의 수행을 높이 평가 영어를 썼다는 이유로 자신의 수행을 낮게 평가
12	고유어 조합은 촌스러운 것이라는 인식 확인됨	고유어로 조합한 자신의 새말을 낮게 평가하고, 그 이유로 “너무 촌스럽다, 문화어 같다”등의 이유를 기술함.
13	영어 표현은 세련된 것이라는 인식 확인됨	“세련된 표현이다, 어감이 좋다” 등
...	(중략)	
17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어종과 실제 수행에 활용한 어종이 불일치하는 양상이 확인됨	예) 슬립구두(⑥): “뭔가 그런데... 슬리퍼를 우리말로 찾기가 어려웠다.”
18	어종에 관한 선호와 실제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핑거 폰 홀더(②): 지나친 외래어 사용이 문제이나, 우리말 순화가 힘들다.

3차 이후의 분석은 앞선 분석에서 추출한 핵심 양상들을 초점화하여 자료를 재검토하고 이를 정련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엽적인 양상은 삭제하고, 동일한 부류의 기술들은 한 단계 추상화한 상위 범주를 설정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표 2〉의 항목 1~3, 4~10, 11~18을 하나의 상위 범주로 포괄하여 기술할 수 있었다. 항목 1~3은 표면적인 새말의 어종 구성에 관한 것으로 ‘새말의 어종 구성’의 하위 요소로 기술하였다. 항목 4~10은 ‘새말 만들기 과

정’과 관련한 항목들로, ‘명명 대상에 따른 어종 선택’과 ‘형태화 과정에서의 어종 변환’으로 하위 범주화하여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1~18은 ‘어종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 관한 범주로 수렴하였다. 이 항목에서는 학습자가 어종에 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의식과 실제 수행이 일치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¹²⁾ <표 3>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 활용 양상 체계화

새말의 어종 구성	- 고유어, 한자어 단일 어종으로 구성된 새말의 비율이 낮음 - 단일 구성에 비해 복합 구성의 새말 형성이 활발함 - <u>전체적으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u>		
새말 만들기 과정	명명 대상에 따른 어종 선택	- 관련 대상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어종이 상이함 - 관련 대상이 환기하는 이미지(문화)가 새말의 어종에 영향을 줌 - 명명 대상과 관련한 범주어 혹은 유추 대상을 지칭하는 기존어의 어종이 새말의 어종에 영향을 줌 - 의성어·의태어 표현, 혹은 언어유희를 의도할 경우 고유어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형태화 과정에서의 어종 변환	개념화 과정에 동원된 어휘의 어종 = 최종 형태의 어종	절단, 결합, 대치 등의 과정을 통한 형태 구조화
		개념화 과정에 동원된 어휘의 어종 ≠ 최종 형태의 어종	절단, 결합, 대치 등의 과정을 통한 형태 구조화 + 어종 변환
어종 관련 인식	선호 양상	우리말 선호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체성 차원의 당위적 인식(외래어, 특히 영어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인식) 외래어는 소통성이 낮다는 인식
어종 관련 인식	선호 양상	외래어 선호	외래어는 세련된 표현이라는 인식 (고유어는 촌스럽다는 인식) 외래어는 소통성이 높다는 인식
	의식과 수행의 일치 여부	의식과 수행의 일치	우리말 사용 선호 → 우리말로 새말 형성 외래어 사용 선호 → 외래어로 새말 형성
		의식과 수행의 불일치	우리말 사용 선호 → 외래어로 새말 형성

12) 물론 ‘새말의 어종 구성’, ‘새말 만들기 과정’, ‘어종에 관한 인식과 수행’을 동일한 층위의 양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이들이 구성하는 입체적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별도로 요구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각 국면의 양상을 충실히 기술해 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IV. 어종 활용의 유형과 교육적 함의

본 장에서는 이상 귀납한 내용에 대한 교육적 관점의 해석을 시도한다. 해석은 추가 설문 분석 결과와 단어형성법과 관련한 언어학적 이론을 근거로 한다. <표 3>의 내용 중 심층적 해석이 요구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³⁾

- ㉦ 외래어로 구성된 새말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 ㉧ 명명 대상에 따라 주로 활용되는 어종이 상이함
- ㉨ 개념화 과정에 동원된 어휘의 어종과 최종 형태의 어종이 불일치함.
- ㉩ 의식적으로 선호하는 어종과 실제 명명 과정에서 사용된 어종이 불일치함

이하에서는 ㉦~㉩를 ‘새말의 어종(㉦), 개념화와 형태화(㉧, ㉨), 어종 인식과 수행(㉩)’으로 범주화하여 상술할 것이다. ‘새말의 어종’에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 집단의 새말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심층 기술할 것이다. ‘대상의 개념화와 형태화’에서는 명명 대상을 개념화하고, 이를 단어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어종과 관련한 요소들을 기술할 것이다. 이는 설문지의 ‘단어 만들기 과정 메모’에 기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마지막 ‘어종 인식과 수행’에서는 어종과 관련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피는 한편, 인식과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이는 설문지의 ‘내가 만든 단어 평가하기’의 내용과 ‘단어 형성 과정에 대한 메모’를 근거로 추

13) <표 3>의 짚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 1차원적인 인과 관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래어를 선호하는 화자가 외래어를 활용하여 새말을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과 관계로 설명된다. 반면 고유어를 선호하면서도 외래어 단어를 만드는 경우는 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론된다.

이상의 과정은 ‘학습자가 어떤 어종을 주로 사용하는가’의 문제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특정 어종을 선택하는가?’에 답하기 위한 작업이다. 활용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때 어종과 관련하여 유효한 교육 방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새말의 어종

학습자 집단의 수행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 외래어가 포함된 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유어 혹은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단일 어종 단어가 극소수임과 비교할 때 외래어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생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본고는 이상의 양상이 학습자 집단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 민감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경향성을 비교하였다.

〈표 4〉 대상 ④에 대한 명명 결과 비교

	학습자 군	전문가 군
고	칼골무, 손가락막칼, 칼막이, 마디지킴이, 탕탕이, 손가락지킴이, 안자르미	칼조심이, 손지킴이, 손가락 지킴이, 식칼막이, 칼골무
한	거리유지기, 절단보호조리기구	(없음)
외	핑거세이퍼, 핑거세이버, 핑거실드, 핑거키퍼, 핑거프로, 핸드가드, 핸디실드, 핸드키퍼, 핸드다펜더, 핸덱터, 커팅실더, 디펜드포블레이드, 논-커터, 그림톡, 세이프록	핑거가더
고+한	손가락보호대, 손보호대, 손가락보호구, 손보, 탈보호지, 칼보호대, 피방지구, 칼옹성, 칼패, 갑손, 철갑골무, 손가락 절단 방지 보호구, 손조개, 썰방골, 손톱방패, 손톱막, 손가락전달보호막, 칼질 손 보호대, 손가락 방패, 손가락 보호판	칼방패, 도마 방패, 주방골무, 안전손덮개, 칼질보호대, 칼질 손 보호대, 손 보호개, 손가락보호대, 손톱보호대, 손방패, 손썰방, 손방패, 칼질 보조 도구, 안심 칼질 쓰개

고+영	플라스틱골무, 핸드호호, 손커버, 골무락	칼손캡
한+영	컷패	(없음)
고+한+영	(없음)	손빔방지캡

〈표 4〉는 대상 ④에 대한¹⁴⁾ 학습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¹⁵⁾ 두 집단 모두 고유어와 한자어를 조합하는 방식의 단어를 가장 많이 형성했다. 이 경우 ‘손, 손가락, 보호, 방지, 방패, 골무, -구(具), -대(帶)’와 같은 단어 형성 요소가 주로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을 보호하는 도구〉를 표현할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 보호, -구’와 같은 형식을 자연스럽게 조합하거나, 대상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골무, 방패’의 하위 범주로 대상을 인식하고, 여기에 변별 속성을 더하여 단어를 형성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학습자 집단의 경우 외래어만으로 구성된 단어 역시 매우 활발하게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명명 결과에서 외래어 단일 어종으로 구성된 단어의 출현 횟수가 ‘1’인 것과 비교하면 더욱 주목된다. 이들 단어에는 ‘핑거(finger), 핸드(hand), 세이프(safe), 디펜드(defend), 킵(keep), 쉴드(shield), -er’ 등의 단어 형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외래

14) 대상 ④는 외래 문물이나 문화를 바로 연상시키지 않으며, 상기되는 단어가 ‘칼, 도마, 칼질, 손, 골무, 방패, 쇠, 보호’ 등으로 비외래어인 까닭에 다른 명명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래어 사용 비중이 낮았다. ②, ⑦, ⑧번과 같이 관련 범주의 주요 명칭이 외래어이거나(스마트폰, 온라인, 인터넷 등), 유추 대상 단어가 주로 외래어(프리티그-페이허거)인 경우는 외래어의 활용 빈도가 훨씬 높았다. 이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④에 대한 명명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15) 학습자군 88명, 전문가군 30명의 수행 결과이며, 동일 형태는 중복하여 적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대표하였다.

에 대한 선호에 따라 의식적으로 외래어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학습자 집단의 어휘부와 전문가 집단의 어휘부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의 많은 논의들이 전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해 왔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도 “외래어 표현이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와 같은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다수 접할 수 있었다. ‘손보호막’보다는 ‘핸드쉴더(hand-shielder)’가 더 세련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할 경우 외래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 민감성이 높은 전문가 집단의 연구 참여자가 외래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양상과 상호 반접(反接)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전문가 집단의 한 연구 참여자는 대상을 ‘칼질 손 보호대’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스스로 “한 단어 같지 않고 키워드 나열 같다”라고 평가했으나, 굳이 다른 어종의 표현을 모색하지 않았다. ‘고유어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P-30〉의 사례).¹⁶⁾

반면 학습자 집단의 경우 전문가 집단과 비교하여 외래어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이에 따라 필연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외래어를 활용한 새말을 더욱 활발히 만들어 쓰는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제, 머릿속에 자리한 어휘 자원의 구성과 활성화 정도가 어종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위 양상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¹⁷⁾ 학습자들의 어휘부에 ‘손, 손가락’만큼이나 ‘핸드(hand), 핑거(finger)’가, ‘보호막, 방패, 골무’만큼이나 ‘쉴더(shield(er)), 키퍼(keep(er)), 가더

16) 실제로 ‘칼질+손+보호대’와 같이 명사가 나열되는 구성은 그것이 통사적 구(句)와 형식적으로 변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단어성(wordhood)이 떨어진다(최형용, 2012: 149-150). 인터뷰에 참여한 이 명명 화자는 형식상의 약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종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17) 이는 어휘부(lexicon)를 가정한 분석이다. 단어 형성 논의에서 어휘부는 내부적으로 정교한 체계(추상적 규칙)를 갖춘 ‘단어 형성 모듈’, 혹은 단어들이 긴밀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단어 저장소’로 전제된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후자, 즉 ‘단어 저장소’로서의 어휘부를 상정한다.

(guard(er))’가 현저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결합한 형태의 단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실제로 ‘핸드크림, 핑거푸드, 쉴드치다(게임 용어), 라이프가드’ 등의 용어에 익숙한 화자라면 ‘핸드, 핑거, 쉴드(더), 가드(더)’를 단어 형성 요소로 활용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생활환경의 특성상 유아기부터 영어 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많은 학습자 집단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외래어를 중심으로 한 어휘부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대상을 인식하고 표현함에 있어서도 외래어가 주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어중에 관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에 앞서 학습자의 어휘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어떠한 어휘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풍부한 언어 생활을 위해 지향해야 할 ‘양질의 어휘부’¹⁸⁾의 상(像)을 설정하는 것 등이 어종과 관련한 단어 형성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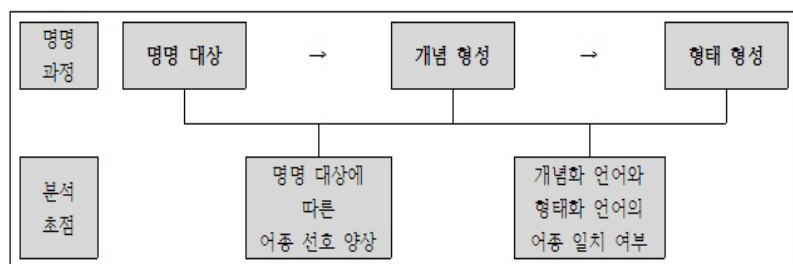
2. 개념화와 형태화

‘개념화(conceptualization), 형태화(verbalization)’는 표현론적 관점(onomasiological approach)에서 ‘의미 형성 과정을 포함한 단어 형성’을 논의할 때 활용되는 용어이다.¹⁹⁾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대상 → 개념/의미

18) ‘양질의 어휘부’에 관한 아이디어는 ‘좋은 어휘부를 갖게 하는 것’을 어휘 교육의 주요 목표로 제안한 구본관(20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특정 어종이 중심이 되는 어휘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종의 어휘들이 균형 있게 자리하고 있어, 명명 화자로 하여금 주제적인 선택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어휘부를 이상적인 어휘부로 상정한다.

19) 표현론적 관점은 해석론적 관점(semasiological approach)과 대를 이루는 언어학 연구의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 해석론적 관점이 ‘하나의 형태가 어떠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방법론’이라면, 표현론적 관점은 ‘하나의 개념이나 의미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실현되는지를 밝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Štekauer, 1998, 2001,

→ 형태’의 방향으로 단어의 형성을 연구하며,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보다는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둔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가 대상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 또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의 단어를 형성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명명 과정과 분석의 초점

이하, ‘명명 대상에 따른 어종 선호 양상’과 ‘형태화 과정에서의 어종 변환 양상’의 교육적 함의를 심층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명명 대상에 따른 어종 선호 양상

분석 결과 명명 대상에 따라 단어 형성에 활용되는 요소의 주 어종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②, ③, ⑤, ⑦, ⑧은 외래어 단독 혹은 외래어가 포함된 단어가 주를 이룬 반면, ①, ④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 요소를 조합한 단어의 비중이 높았다. 지면 관계상 ①, ②, ⑦의 결과만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²⁰⁾

2005.; 정한테로, 2013, 2015; 박혜진, 2017).

20) ①은 외래어 비포함 비중이 높은 대상을 대표하고, ②, ⑦은 외래어 포함 비중이 높은 대상을 대표한다.

〈표 5〉 대상 ①, ②, ㉑에 대한 명명 결과 비교

	외래어 포함	외래어 비포함
①	휴프로텍터, 글로폰, 도어록, 로커, 라이트앵글락커, 홈 가드, 도어세이퍼, 락스틸, 도어락커, 하우스키퍼, 지킴이라커, 홈지킴고리, 폰고리, 보조라커, 문락, 이중안전후크, 보조후크, 문고리라커	걸쇠, 걸림 고리, 거럭, 잠금쇠, 뺨뽀보기도우미, 내 집 지킴이, 뺨꼬미, 우왜, 탁걸이, 살작보기, 침입자 방지구, 배신, 강도마개, 강도막이, 문고리일인자, 최후의 방어선, 이중잠금장치, 이중잠금이, 보조 문걸이, 애틀함제조기, 강꼼마, 문고리, 문걸이, 문걸쇠, 문걸개, 문잠금 장치, 이중잠금기, 집문 꼭잡개, 문틈걸개, 안전고리, 안전 문 걸이, 한번 더 잠궜, 흑시걸이, 현관문잠금장치, 잠금문걸이, 문방지턱, 안심손보호대
②	스마트 핑거 링, 폰링, 핑거링, 핸드링, 핑링, 멀티링, 스마트링, 헬퍼링, 유(usable+ring), 킵드로핑, 핑거포인트, 핑거 홀더, 핑거 폰 홀더, 폰 행거, 스마트톡, 원핑거링, 백링, 핑거그립, 폰 받이, 폰잡이, 폰거링, 스마트손거리, 폰 손가락걸이, 폰걸이, 폰고리, 폰가락지, 핸드폰 꼭잡개, 가락링, 링딩동, 폰지, 스마트폰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폰반지, 간이핸드폰거치대, 링거치대, 휴대폰인사킷, 폰립대, 핸드폰고정링, 손가락편한링, 휴대폰고리, 휴대폰거치고리, 폰부착고리, 만등미니손잡이	가락걸이, 걸리적, 손걸이, 만능거치대, 전자파반지, 전화반지, 손등걸이
㉑ ²¹⁾	페이허거, 페이드허거, 페이먼트허거, 허거, 프로허거, 코스트허거, 웨이터거, 팽허거, 페이허그러, 퍼그에버, 페이허그, 프리허거, 허그맨, 허깅맨, 유료허거, 유료포용러, 프리허그자, 허그알바	토닥이, 아나바다, 워~워, 안아줄게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행돈, 풍쟁이, 풍풍이, 포용꾼

②, ㉑의 명명 결과는 외래어를 활용한 새말 형성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①의 그것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결과는 외래어 선호 의식이 외래어를 포함한 새말 형성의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어종 선택에 개입하는 대상과 관련한 변인이 존재함을 추측하게 한다.

단어 형성의 대표적인 두 방법인 ‘속성 결합’과 ‘유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대치’를 생각해 보자. 우선 ‘결합’은 대상과 관련한 주요 속성들을 떠올려 하나의 단위로 조합하는 단어 형성 방법이다. 그렇다면 명명 대상과 관련되는 (근접한) 속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의 성격에 따라 새말의 어종이 달리

21) ㉑의 경우 ‘페이허거, 프로허거’ 중복 건수가 많이 유형의 수는 적었다. 통계적 처리를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건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결정될 것이다. 명명 대상 ②는 ‘스마트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로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 혹은 ‘폰’이 1차적 단어 구성재로 선택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말의 어종이 ‘외래어’ 혹은 ‘외래어 포함 혼종어’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스마트폰’에 부착된 동그란 물체를 지칭할 명칭을 찾을 때, ‘반지’보다는 ‘링(ring)’이 먼저 떠오를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반지보다는 스마트폰과 링이 더 근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한편, ⑦의 경우 유추적 사고 과정을 거친 단어 형성의 전형적 사례를 보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프리허그(free-hug)’를 먼저 떠올리고, 이에 유추하여 ‘페이/코스트 허그 → 페이/코스트 허거(pay/cost-hugger)’와 같은 단어를 형성하였다. 이 경우 역시 유추의 기반에 되는 단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단어 또한 외래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²³⁾

또 한편으로는 대상 행위가 서구 문화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포옹’이 아니라 ‘허그’로 표현했다는 언급도 있어 주목되었다. 표현 어휘의 어종을 선택하는 데 대상의 기원, 문화적 배경까지 두루 고려됨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반면 대상 ①은 비외래어 단어 형성이 우세한 양상을 보여 준다. 이 사물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이며, 외래 문물이라는 인식이 적다. 또 관련 대상인 ‘문’, ‘고리’ 등이 ‘도어(door), 후크(hook)’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용어가 자연스럽게 단어 형성에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①의 경우 ‘걸다, 막다, 잠그다’라는 동사가 단어 형성에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고유어 활용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했음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명사와 같은 개념어는 한자어로 된 경우가 많

22) 본고는 형태, 기능, 의미 등과 더불어 어종과 관련한 정보 또한 어휘부 내 등재소의 연결 및 활성화의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23) 대부분은 프리허그를 상기하고 ‘프리’를 ‘돈을 받고’의 의미를 가진 ‘페이(드) 혹은 코스트’로 대체하여 단어를 형성하였다. 익숙한 개념인 ‘프리허그’를 경로로 대상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에, 외래어 단어가 고빈도로 등장한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을뿐더러 영어 단어로 대체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걸다, 막다, 잠그다’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의 경우는 아직 고유어 사용이 우세한 경우가 많다. 하여 ‘용도’를 중심으로 한 ①의 명명에서 고유어의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명명할 대상이 어종 선택의 1차적 결정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명명 화자의 의식이 더해져 2차적 선택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맥락에서는 명명 대상이 가진 내적·외적 속성이 어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함을 부정할 수 없겠다. 이 같은 사실은 단어 형성 교육, 특히 새말 만들기 과정을 설계할 때 대상의 속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시하는 대상이 주로 어떠한 어종으로 표현될지를 미리 예측하고 활동의 목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명명 대상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형태화 과정에서의 어종 변환

표현론적 관점에 따르면 단어 형성 과정은 ‘대상을 의미화하는 단계(개념화 단계)’와 ‘개념을 형태화하는 단계(형태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개념화’는 대상을 인식하여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이고, ‘형태화’는 그 의미 구조에 대응하는 구체적 형태를 추출하여 결합하는 과정이다. 엄밀히 말하면 ‘의미 구조’는 선(先)언어적인 것이지만 사고가 언어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까닭에 구체적 어휘 요소를 동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상④를 두고 <칼로부터 손을 보호해 주는 물건>이라는 의미 구조를 형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칼, 손, 보호, 물건’과 같은 어휘가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나이프로부터 손을 프로텍트해 주는 X>와 같은 의미 구조 형성에는 ‘나이프, 핸드, 프로텍트’ 등의 영어 어휘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개념화 과정에 활용된 언어는 형태화 과정에서 사용된 실체적 언어와 비교하여 추상적 성격을 갖는다. <손을 보호하는 X>와 같은 의미 구

조에서 ‘손보호대, 보수대(保手帶), 핸드프로텍터(hand-protector)’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도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의미 구조상에 드러난 <손>과 최종 형태화 단계에 활용된 ‘손’은 동일한 실체가 아니다. 앞의 것이 무의식 중에 사고의 도구로 동원된 것이라면, 뒤의 것은 의식적·의도적으로 선택된 실체로서의 언어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는 개념화 언어와 형태화 언어의 어종이 일치하지만, 개념화 단계에 동원된 언어와 최종 형태에 반영된 언어의 어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역시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사례에 주목하였다. 대상을 인식할 때 자신의 어휘부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출력될 수 있는 어휘 자원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형태화 단계에서의 어휘 변환은 상당히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언어 선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유형	사례
ㄱ	외래어 → 고유어	X+Cutter Painless ... → 안자르미 〈S-32〉
ㄴ	고유어 → 외래어	경계, 안전, 경계장금쇠? 동 너머 보기... 복판 말 감음 → 씨워드 〈S-10〉
ㄷ	고유어 → 외래어	칼로 음식을 자를 때 막아준다. ↓ cutting ↓ shield → 커팅실터 〈S-76〉
ㄹ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돈 받고 → 유료 안아 주는 사람 → 포옹러 → 유료포옹러 〈S-43〉

〈그림 3〉 어종 변환 사례

- 24) 물론, 어디까지가 개념화 언어이고 어디부터가 형태화 언어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명명 설문지에 기재된 형성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최종 단어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개념 형성 이후 형태 형성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어휘 비교를 통한 의도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종을 변환하여 형태화하는 데 작용하는 1차적 맥락은 명명 주체의 ‘언어 의식’일 것이다. ‘X-cutter, Protect, Painless’ 등을 떠올리다 최종적으로 ‘안자르미’를 선택한 <S-32>의 수행에는 고유어를 써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학습자의 경우 본인이 우리말을 썼기 때문에 자신의 수행을 ‘상-중-하’ 중 ‘상’으로 평가한다는 기술을 남겼다.

한편, 최종 형태에 외래어를 활용한 ‘(ㄴ), (ㄷ), (ㄹ)’의 경우 어종 변환의 맥락을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정 어종에 대한 선호가 원인이 된 경우이다. (ㄴ)이 그러한 유형의 한 예이다. 이 참여자의 경우 ‘북한어 같아지다 보니’ 영어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씨위드’라는 외래 형태를 최종적으로 형성했다.

한편, (ㄷ)과 (ㄹ)은 이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바로 외래어나 한자어가 간결한 표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ㄷ)의 명명 화자는 ‘칼로 자르다, 막아 주다’와 같이 대상의 기능을 초점화하여 개념을 형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 형태를 단어 단위로 압축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형식을 다시금 떠올려야 했을 것이다. 이때 ‘칼로 자르다’에 대한 간결한 고유어 형식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커팅(cutting)’과 같은 익숙하고 간결하며 친숙한 외래어 표현을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돈 받는다’에 대한 간결한 형식의 한자 개념어 ‘유료(有料)’가 선택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유어 형식을 결합한 단어를 만든 경우 ‘단어답지 못하다. 간결하지 못하다, 너무 길다’와 같이 자신의 단어를 낮게 평가한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한자어의 경우 2자의 간결한 단어 안에 서술적 의미를 담는 경우가 있어 단어 형성 요소로 활용했을 시 고유어보다 간결한 새말을 만들 수 있다. 영어 또한 고유어 ‘명사+서술어’로 표현해야 할 형식을 하나의 단어로 대체할 수 있기에 더 간결하고 단어다운 느낌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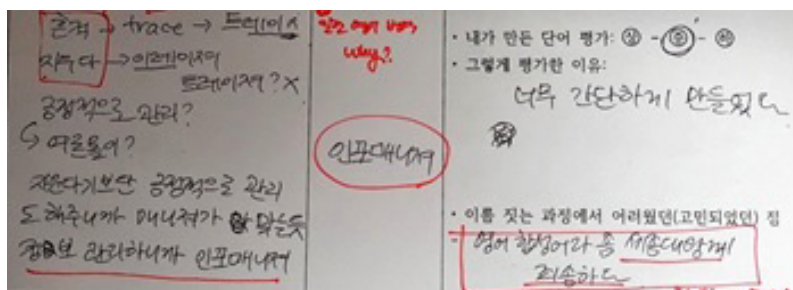
상황이 이러하다면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고유어를 살려

써야 한다'와 같은 기존의 태도 중심 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특정 어종에 대한 선호 의식과 관련한 주체적 성찰의 경험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단어 형성 요소로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갖는 언어적 특성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들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3. 어종 인식과 수행

명명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종 활용에 관한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했다. 본고는 이를 토대로 어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경향을 살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명명 결과만 봤을 때는 외래어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것에 비해 그 내면에는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림 4〉의 연구 참여자는 '인포매니저'와 같이 외래어로 대상을 명명한 후 "영어 합성어라 세종대왕께 죄송하다"라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했다. 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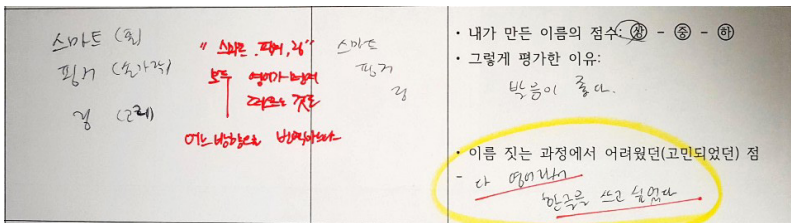


〈그림 4〉 "영어 합성어라 좀 세종대왕께 죄송하다." (S-10)

그런데 정작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술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외래어 사용을 긍정하는 경우는 ‘세련된 표현이어서, 소통성이 높아서, 간결해서, 라임이 좋아서’와 같은 구체적 사유가 드러난 사례가 많은 반면, 고유어 사용을 긍정하는 경우는 ‘우리말을 써서 좋다, 외래어라서 좀 그렇다, 너무 외래어만 써서 불만이다’와 같은 1차원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기술이 대부분이었다.

국어 언중의 내면에 우리말을 살려 써야 한다는 의식이 당위적 차원으로나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식의 내면을 좀 더 면밀히 성찰하고 주체적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어종이 있음에도 그와는 다른 어종으로 새 말을 만드는 현상에 대해 기술해 보기로 한다.²⁵⁾



〈그림 5〉 “다 영어라서 한글로 쓰고 싶었다.”(S-18)

〈그림 5〉는 우리말로 단어를 만들고자 함에도 현실적 이유로 외래어를 활용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학습자의 사례이다. 학습자들이 우리말 사용을 의도함에도 수행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5) ‘2-2)(형태화 과정에서의 어종 변환)’에서 다룬 것과 중복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앞에서 단어 형성의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이 현상을 다루었다면, 여기에서는 ‘의식’을 초점화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휘 자원의 문제이다. 학습자들의 어휘 부가 상당 부분 외래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외래어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어휘력이 단어 형성의 기반이 된다는 일반적 논리와 통한다. 결국 자신이 추구하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어휘 지식이 필요한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어휘를 두루 접하고 활용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어휘부를 단련시켜야 한다.²⁶⁾ 이를 위해서는 다소간 인위적인 어휘 학습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어휘를 맥락과 함께 제공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해 보는 방향의 교육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짧은 음절 안에 개념을 담을 수 있는 한자어 및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로 단어를 만들 경우 음절 수가 길어지고 간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주목된다. 이는 각 어종이 가진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 경우 어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어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함을 교수·학습할 수도 있고, 고유어를 살려 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비유적 표현,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표현, 유희적 표현 등에서는 고유어가 주로 활용됨을 볼 수 있었는데, 이 지점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²⁷⁾ ‘비유나 상징을 활용하여 단어 만들기, 감각을 나타내는 다양한 우리말 어휘 활용하기’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이상의 노력은 언어 수행에 있어 학습자의 주체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어 사용에 관한 주체적 의식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것이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26) 본고가 지향하는 어휘부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어휘가 균형 있게 자리하고 있으면서, 상호 연관성이 활성화된 상태의 어휘부이다. 이러한 어휘부는 신념과 의도에 따른 ‘주체적 선택’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27) 참여자 중 활동 전반에서 고유어를 살려 쓰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학습자가 있었는데((S-6)), 이 참여자의 경우 ①을 ‘빼꼼보기도우미’, ④를 ‘하늘팡팡이’로 명명하였다. 동작의 느낌이나 모양을 고유어로 재치 있게 표현한 예라 할 수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남은 과제

이상 명명 과제 수행 분석을 통해 어종과 관련한 학습자의 언어 의식 및 수행 양상을 체계화하고 핵심 양상에 대한 심층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 형성 시 어종 선택에 관여하는 다양한 맥락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어종 선택에는 ‘명명 대상 자체의 속성, 화자의 언어 의식, 화자의 어휘부,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가진 언어적 특성’ 등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어종 관련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새말 만들기 과정에서 드러난 어종 선택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내용 중심의 교육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단어 형성 교육이 어종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어종과 관련한 주체적 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연구가 필요하다.²⁸⁾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각 어종의 특성 및 언어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알게 하고, 자기 수행에 대한 반성적 평가 경험을 통해 어종과 관련한 의식을 명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단어 형성 장면에서 외래어 사용 비중이 활발함을 감안, 외래어에 대한 적극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²⁹⁾ 현 언어 사회에서 외래어가 한자어 및 고유어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국어 어휘부를 풍부하게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바(노명희, 2011: 34), 외래어 역시 국어의 단어를 형성하는 자원의 하나로 수용하고 의미의 형태화 과정에서 하나의 선택항을 구성하는 요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28) 사례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어종과 관련한 나름의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거나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29) 한국어 교육 자료에 사용된 복합어의 어종별 특성을 연구한 강현화(2016) 역시 현실 언어를 고려하여 외래어에 대한 어휘 교수의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강현화, 2016: 132).

셋째, 학습자의 어휘부에 심리적 기억 단위로 남아 단어 형성, 문장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한자어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³⁰⁾ 학습자의 명명 활동을 통해 확인한 바 한자어 역시 국어 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학습자들이 이들을 고유어와 같은 지위로 인식하고 ‘우리말(고유어+한자어):외래어(영어)’와 같은 이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유어’와 같은 심리적 지위를 갖기도 하고, 한자어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갖기도 하는 한자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³¹⁾ 한자어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어 형태소와 성격이 비슷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심리적 기억 단위로서 단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등으로 한자어를 구분하고 학습자의 언어생활과 밀접한 한자어 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말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 이유로 외래어를 활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³²⁾ 어떻게 하면 의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어휘의 의미, 사용 맥락 등을 교수·학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양질의 어휘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장면에서 의도적인 노력을 기하는 것이다. 한편, 고유어의 언어적 특성을 살려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 유희적 표현’ 등을 활용한 창의적 단어 형성의 가능성을 교수·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나 외래어 표현이 ‘간

30) 한자어의 특성 및 한자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안소진(2018), 노명희(2005), 김창섭(200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31) 유아기에 습득되어 고유어와 다를 바 없는 어휘 자원으로 활용되는 ‘문(門), 우유(牛乳), 이모(姨母)’ 등의 단어는 고유어와 같은 지위로 언어생활에 활용된다. 또한, ‘벽(壁), 산(山), 강(江), 문(門)’과 같은 1음절 한자어라면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어 한자어임에도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안소진, 2011: 7).

32) 이것이 고유어 사용에 대한 절대적 긍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다만, 고유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현실적 이유로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는 것이다.

결한 개념 표현'에 유리하다면, 반대로 고유어 표현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성어, 의태어 활용'에서부터 '언어 유희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말 맛을 살린 창의적인 새말 형성'과 관련하여 고유어 활용을 지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명명 대상이 새말의 어종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 장면에서 명명 대상을 제시할 때 '예상되는 어종'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형성 맥락을 중시하는 최근의 단어 형성 교육에서 '새말 만들기 활동'은 핵심적 교육 내용이며, 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명 대상 선정은 새말 만들기 활동 설계 과정에 포함되는 주요 국면이며, 이때 예상되는 어종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어종의 새말을 의도하여 명명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고, 특정 어종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명명 대상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자어 및 외래를 포함하는 새말이 활발히 만들어지고 소통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기에 단어 형성 교육에서 '어종'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이를 위해서는 단어 형성 과정에 어종이 관여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명명 과제를 활용하여 단어 형성 장면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어종 활용과 관련하여 단어 형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학습자의' 언어 의식 및 수행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단어 형성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과물로서의 단어가 아닌 '단어 형성 장면'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 기술을 포함한 명명 과제'를 활용한 것 또한 본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을 토대로 한 교육적 제안이 방향 제시 차원에 그친 것은 본고가 가진 분명한 한계이다. 논의를 체계화·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것을 약속한다.

* 본 논문은 2019.8.10. 투고되었으며, 2019.8.12. 심사가 시작되어 2019.9.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현화(2016), 「한국어교육 자료의 어종별 복합어의 특성 연구」, 『문법 교육』 26, 129-155.
- 권항원(2016),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91-216.
-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27-59.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서울: 집문당.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2016), 『한국어 문법 총론 II』, 서울: 집문당.
- 김창섭(2001), 「한자어 형성과 고유어 문법의 제약」, 『국어학』 37, 177-195.
- 남길임·김덕호(2014), 『2014 신어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 남지애(2015), 「외래어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 『문법교육』 23, 29-69.
- 남택승(2016), 「새말 만들기 교육의 문제와 방향」,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119-148.
- 남택승(2019), 「의미와 어중 중심의 새말 교육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서울: 태학사.
- 노명희(2006), 「한자어 문법 단위와 한자어 교육」, 『국어국문학』 142, 465-489.
- 노명희(2009), 「외래어 단어형성」, 『국어국문학』 153, 5-29.
- 노명희(2011), 「현대국어 이중 어휘의 유의적 공존 양상」, 『어문연구』 39(2), 33-62.
- 박혜진(2017), 「‘새말 만들기’ 과제 설계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 30, 67-100.
- 박혜진(2019), 「표현 중심 단어 형성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 『문법교육』 35, 163-195.
- 안소진(2011), 「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소진(2018),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단어 형성법 부문의 한자어 자료에 대한 검토」, 『어문연구』 46(2), 55-79.
- 윤건수(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2), 163-200.
- 윤구희(200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 형성법 단원의 문제」, 『중등교육연구』 57(1), 187-211.
- 이광호(1997), 「외래어 요소가 포함된 단어 형성 연구」, 『관악어문연구』 22, 519-542.
-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 혁·하동원·박찬용(2019), 『언어와 매체』, 서울: 지학사.
- 이선영(2018), 「외래어 신어의 몇 가지 양상」, 『국어학』 87, 117-144.
- 이현희(2013), 「의도적 단어 만들기에 나타난 조어 방식 연구」, 『어문학』 122, 235-268.
- 임홍빈(2008),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의 문제」, 『새국어생활』 18(4), 5-32.
- 정한데로(2013), 「명명 과제를 기반으로 한 임시어의 형태론」, 『국어학』 68, 367-404.
- 정한데로(2015), 「단어 형성 과정의 개념화와 언어화(19세기 말~20세기 초 자료의 의의)」, 『언어와 정보와 사회』 24, 125-158.
- 정한데로(2019), 「명명 과제를 활용한 단어 형성의 개념화·언어화 연구」, 『국어학』 90, 173-200.

- 조진수(2018),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용(2012), 「순화어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6, 127 - 159.
- 최형용(2013), 「어휘부와 형태론」, 『국어학』 66, 361 - 413.
- Charmaz, K. (2006), 『근거이론의 구성』, 박현선·이상균·이채원(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63).
- Downing, P. (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4), 810-842.
- Štekauer, P. (1998), *An Onomasiological Theory of English Word-Form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Štekauer, P. (2001), "Fundamental Principles of Onomasiological theory of English word-formation", *Onomasiology Online* 2, 1-42.
- Štekauer, P. (2005), "Onomasiological approach to word-formation", In Štekauer, P. & Lieber, R. (Eds.), *Handbook of Word-formation*, Dordrecht: Springer.

명명 과제 수행에 나타난 어종(語種) 활용 양상에 관한 연구

박혜진

본고는 고유어 중심의 단어 형성 교육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고, 단어 형성 교육에서 외래어 및 한자어를 수용·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명명 과제를 설계·시행하여 새말 만들기 장면에서 다양한 어종의 어휘 자원이 활용되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종 선택에는 ‘명명 대상 자체의 속성, 명명 화자의 언어 의식 및 어휘부 체계, 고유어·한자어·외래어가 가진 언어적 특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단어 형성 교육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자어 및 외래어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 단어 형성 장면에 나타나는 학습자의 의식 및 수행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본고의 논의는 향후 단어 형성 교육에서 어종과 관련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명명 과제,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단어 형성 교육, 문법교육, 표현론적 관점, 근거 이론.

ABSTRACT

A Study on Students' Language Usage Patterns

—Focusing on Word Type during a Naming Task

Park Hye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tudents' language usage patterns by focusing on word type. So we qualitatively analyzed the patterns in which the lexical elements of different languages are utilized in the scene of making new words through the naming task.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lection pattern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naming objects, the speaker's language consciousness and lexicon, and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word'. Thus, we suggested that a more diverse and active approach that includes Sino-Korean word and loanword should be implemented when designing word-formation education.

KEYWORDS Naming Task, Type of Word, Pure Korean Word, Sino-Korean Word, Loanword, Word-formation, Grammar Education, Onomasiological Approach, Grounded Theory